

SKT 영업익 40% ↓ KT 부동산 착시효과 LG U+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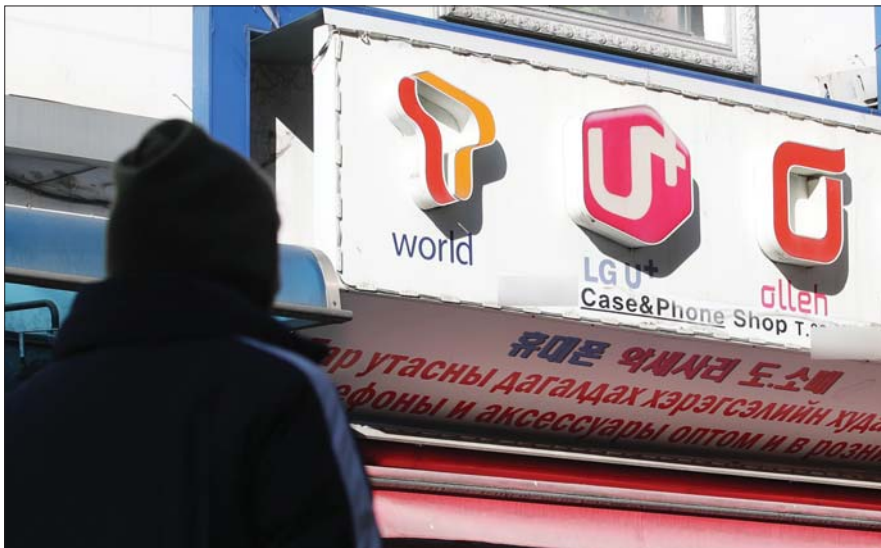
통신3사 합산 영업익 4조

대형 사고 수습 영향 각 사 온도차
작년 4분기 기점으로 악재 털어내
AI 전략이 실적의 핵심 변수될 듯

이동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다시 4조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실적 회복 국면에 들어선 듯 보이지만, 4조원대 성과를 떠받친 동력은 각 사마다 달랐다. 대형 사고 수습 비용,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일회성 이익, 경쟁사 악재에 따른 반사효과가 맞물리며 통신 3사의 실적은 같은 숫자 아래서도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5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9% 늘어난 규모로 2023년 이후 다시 4조 원대 복귀다.

다만 각 사별로 실적 명암은 갈렸다. SKT가 1조 원대를 가까스로 방어한 것과 달리 KT는 2조 원을 웃도는 실적을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냈고, LG유플러스는 1조 클럽의 문턱에 다다랐다.

SKT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9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했다. 4월 발생한 유심 서버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보상안을 집행했고, 1300억 원대 과징금과 회망퇴직 비용 2500억 원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처참하게 꺾였다. 현재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

적 대응에 나섰으나, 사고 수습에 따른 재무적 타격은 이미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KT는 부동산 덕분에 ‘착시’에 가까운 호실적을 냈다. 영업이익 2조 477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0% 넘게 폭증했다. 통신 본업의 성과라기보다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분양 이익 등 비통신 분야의 일회성 수익이 실적을 떠받친 결과다.

특히 하반기 발생한 해킹 관련 비용이 아직 실적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수익성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가입자 이탈 영향 또한 1분기에 반영 될 전망으로, 증권가에서는 가입자 31만 명 순감에 따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800억 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의 보안 이슈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영업이익 9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성장했으며, 무선 매출과 데이터센터 등 기업 인프라 사업이 고르게 성장했다. 대형 악재를 피하면서 실익을 챙긴 유일한 사업자로 평가받는다.

최유진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이익 바닥을 통과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투자했던 AI 관련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통신 3사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악재를 대부분 털어냈다고 분석한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한 수익 모델 증명으로 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KT의 소타K,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각사가 내놓은 AI 전략이 일회성 비용 부담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지가 2026년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동사들의 데이터센터 사업부 합산 매출액은 1조5500억원 수준일 것”이라며 “연평균 약 19%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2조4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웅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25년 일회성 이익(KT 부동산 이익)과 비용(SKTEL 및 KT 해킹 관련 보상안, SKTEL 및 LGU+ 회망퇴직)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위약금 면제로 인해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 효율화가 이를 상쇄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조정밀측위 AI로 부산신항 안전 지킨다

LGU+, AI 안전관제시스템 구축 이동장비·작업자 위치 실시간 파악

LG유플러스는 부산신항 5부두 항만 작업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조정밀측위(RTK) 기반의 인공지능(AI)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부산신항 5부두 운영사 비엔씨(BNCT), 해운·항만 IT 전문기업 싸이버로지텍과 함께 구축한다. RTK를 활용해 항만 내 컨테이너 하역차량 등 이동장비와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CCTV 분석을 통해 위험 상황이 예견될 경우 작업자와 장비,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구조다.

AI 안전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RTK다. 기존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은 위치 오차가 최대 15m까지 발생해 장비와 작업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만은 대



부산신항 5부두에 위치한 항만 크레인에 설치된 조정밀측위(RTK) 단말의 모습.

/LG유플러스

형 장비가 빈번히 이동하고 컨테이너 적재로 시야가 제한돼 정밀한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보정·추적하는 RTK 방식을 적용했다. 지난해 진행한 실증에서는 스트래들 캐리어의 위치를 1~2cm 단위

로 추적하고, 작업자와 장비 간 거리 기준 자동 알림 기능을 구현했다.

또한 국내 전역에 구축된 약 200개의 지상 기준국에서 생성한 보정 데이터를 자체 통신망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전송하는 체계를 적용해 위치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서현 기자

LG CNS, ‘AI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실증

한국은행과 국내 최초로 구현

LG CNS가 한국은행과 함께 인공지능(AI) 이상탐색, 구매 결정,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이다. 예금 토권이 유통되는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상거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AI 자동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디지털화폐의 활용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LG CNS와 한국은행은 이번 실증에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가상의 페르소나로 설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 소스를 구매하는 실제 상거래 환경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상품 탐색과 비교, 구매 결정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김보민 기자

SKB 말로 하는 AI상담 운영

SK브로드밴드는 말로 문의하면 AI가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화면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보면서 말로 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이번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요금 조회 ▲가입 신청 ▲상품 변경 및 결합 신청 ▲고장 진단 등 200여 개의 자주 문의하는 업무를 상담원 연결 없이 24시간 간편하게 화면을 보며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보민 기자

SKT, 협력사 169곳과 ‘안전 우선’ 다짐

성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논의

SK텔레콤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안전보건 협력사 169곳을 초청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협력사들과 함께 2026년도 안전보건 상생 협력 계획을 공유하고, 작업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안전관리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사는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심화 교육, 1대1 맞춤형 방문 컨설팅, 안전체험교육관 운영, 협력사 안전공모전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실천 우수 기업 11곳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야간 도로 굴착, 관로 이설, 깊이 2.5미터 이상 맨홀 내부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 환경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기업 8곳과,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한 기업 3곳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서현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미디어 IT 연속 수주

MBN·롤파크 시스템 고도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방송·미디어 분야 IT 사업들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MBN의 ‘차세대 보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방송·미디어 IT 서비스는 기획, 컨설팅, 개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현재 15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방송사의 보도 시스템과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관리 시스템, 유통 플랫폼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사업을 크게 ▲사용자 중심의 보도·편성·광고 시스템 구축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전문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 전문성 확보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작업 흐름 혁신, 접근 제어 기반 보안 체계 구축, 고객 주도의 변화관리 지원 등 차별화된 4대 추진 전략을 앞세워 보도 정보 시스템의 AX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MBN 차세대 보도정보시스템이 오는 10월 정식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 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해당 사업이 카메라 시스템, 선수와 중계진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장비, 실시간 전송 장비 등 기존 노후화된 e스포츠 방송장비를 신규 방송장비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보민 기자 kbm@